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충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모든 것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십시오

강한 힘 얻고 싶어요

문 작년에 스님께서 주신 답변에 힘입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어찌나 몸이 아프고 사는 게 고달프게 느껴지는지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통 지쳐 있으니 마치 검은 먹구름에 뒤덮인 밤하늘에 놓인 기분입니다.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힘이 필요하지만 기진맥진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지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약도 지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찬 에너지가 활짝 넘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강한 힘이 가득 차서 내 가족은 물론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고요. 참 어리석지요? 스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감히 칭해 봅니다.

답 여러분이 작다 크다 싫다 좋다 하는 것도 없이 딱지는 대로 안으로 굴러서 놓고, 또 바깥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만 항상 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억울하다고 하리만치, 즉 말하자면 상품 중품, 하품자리가 한데 합쳐진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도 그렇고,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진출해 나가는 활용은 가짓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내 몸을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그 줄을 잡고 단추만 누를 줄 알아야 내 몸을 잘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병고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물질로만 돼 있는 것 같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 안에 있습니다. 종합한자력발전소라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우주적으로도 줄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저 풀 한 포기까지도 전부 그 한 줄에 매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이는 약도 있고 살리는 약도 있고, 바로 한 마음 속에 다 들어 있던 말입니다. 만약 목이 아프다면 "그게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바로 그 단추가 눌러지는 겁니다. 한 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 단추만 누르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락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서 의사가 되면서, 생명체들이 좀 많습니까? 간이면 간 부위에 공장장이, 즉 말하자면 병원 원장이 돼 가지고 그걸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팔자라 이겁니다. 걱정을 하나씩 팔자 운명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걱정을 왜 합니까. 안으로 단추만 누르면 거기서 어리석게 알아서 할까 봐 걱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아예 자기를 버리고 들어간다면 빨리 들어갈 텐데 모르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살면 습, 착, 욕심이 팍 차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쩌나 하면서 병원에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아예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고장난 부위를 고친다고 해도, 그 부위에 적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딱 부위에는 그 약이 적합하지 않을 때 부작용이 또 나는 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병이 들어서 죽는다면, 죽는 것도 네 탓이요, 산대도 네 탓이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죽음으로써 몸이 벗어지는 겁니다. 한데 합쳐서 한 생명들이 모두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형성된 거지,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형성될 리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부위마다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선 내맡겼을 때 내 곱질은 건당 따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름과 같은 겁니다. 건당 따라다니는 이름과 같은 거죠.

만약에 당장 간이 파괴됐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지도 못하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그 생명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몸의 부위 부위에, 그 양면에 단추가 있다는 거, 태양의 근거지도 바로 여기요, 우주의 근거지도 여기요, 세계의 근거지도 여기요, 국가의 근거지도 여기요, 뭐 전체가 다 여기입니다. 줄줄이 여깁니다. 줄줄이 사랑이예요.

그러니 딱지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패기가 있어야 하고 긍지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틀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두 몸 건강하고 건실한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웃 벋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계시다가, 웃도 그렇고 슬퍼도 그렇고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것보다 깨끗하게 입으려면 바퀴 입지 않습니까? 기를 묻고 찢어진 거를 입고 다니면서 냄새 피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도 건강하게 끌고 다니면서 관하고 사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인간의 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도리를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걸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돼있는 분들도 그래도 해 나가면 더디더라도 환경을 조성하여 차츰차츰 그 부위가 살아날 수 있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한테 기댈 게 아니고, 또 남의 말에 기댈 게 아니고, 사주팔자에 기댈 게 아니고, 부처이나 역학에 기댈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고등동물로 태어났는데 인간답지 않게 조그마한 종이 조각, 남의 말, 그런 데다가 보람없는 자기 생명을 불어써 한탄해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얼마만큼 귀중하고 쓸모 있고 개발력 있고 생동력 있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생각에 우주의 근본을 다루면서, 또 한생각에 만물을 다루면서, 한생각에 만물을 건지면서, 한생각에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한생각에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정말로 알고 살면서 소소한 때 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생동력 있게 나와 남에게 이익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항상 관하면서 사세요.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문 한마음선원 홈페이지를 통해 스님의 높고 깊고 한량없는 말씀을 많이 배워서 주인공 자리에 놓으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여 집도 경매에 들어가 있고 회사도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지만 스님 말씀에 따라 주인공자리에 놓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하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놓아야 하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불가사의한 법도 거기에서 나오게끔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주인공의 집이란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빗장을 쥐고, 바로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불가사의한 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빗장도 이름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요. 주인공이라는 이름은 몸을 담으려면 컵이 있어야 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집이라고 한다면 주인공 안에 일체 부처님, 석가세존으로부터 천백억화신으로부터 일체 보살



그림 · 최주현

내 한마음이
나·가족을 건지고
나라·국민을 살리면
그 공덕 말로 형언 못해

는지요
답 주인공을 찾는 것

도 돌로 찾아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주인공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들 하시죠?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빌어 한 다리 건너가니까 그런 겁니다. 이만한 주인공이라고 해봤을 뿐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기복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미신이죠.

재차 말합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의 병고를 낫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간다고 믿고 관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내 주인공밖에 해줄 수 없고, 잘 이끌어줄 수 없다는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믿는 것이 더

로부터 저 타국에 있는 보살로부터, 병고도 내

주인공밖에 없앨 수가 없다는 한생각을 낸다면, 일체 부처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 바로 일체 보살들이 한참나에 와 듭니다. 용도에 따라서 나고 들거든요.

그런데 뭐냐? 내가 병고로 인해서 한생각을 낸다면 약사보살이 참나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거를 수없이, 이것을 견지하면 이게 되시고 저거를 견지하면 저게 되시고, 천차만별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마음 자체가 상대가 없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마음도 내리고 저 마음도 내리고, 가난해서 부른다에는 해결할 수 없고, 잘 이끌어줄 수 없다는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자식이 부르면 금방 어머니로 변하면서 마음도 금방 자

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듯이, 이 마음을 떠올리면 그대로 약사보살이 나타나고, 해아릴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 작용을 그대로 믿고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타파해 나가는 묘용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업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문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가르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주인공 공에 일임하며 놓고있으나 확실한 답변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리라 오랜 방황 끝에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강아지를 키워서 큰 개가 되면 팔아서 생계를 꾸려 가는 일입니다. 키운 개가 우리 집을 나서면 죽게 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개도 견지고 저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님은 업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업을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방법의 생계수단을 찾아 보려해도 저에게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세요. 모습은 개로 태어났으니 사람으로서 인도환생을 시키기 위해 그 몸을 벗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주상보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니깐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항상 관해 주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무지하게 때려 죽였대요. 산에 다니면서 땅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수행자를 만났는데 "살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선 돌아가니 어찌 억겁을 지나온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니 땅꾼이 하는 말이, "수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죽인 사이가 없습니다. 그 몸이 내 몸이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고, 생명이 자기 생명이니 어찌 둘이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만 그 소릴 듣고 수행자가 기겁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출현해 떠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개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좋죠. 그런데 개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묘법이요. 영혼이라는 건 백 개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말로 하자면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것은 무식의 도리, 도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짐승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자손들을 셋씩, 돌씩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 해도 항상 찌그리고, 뭐 사는 게 모두 그렇다고 그냥 슬픈 생각만 하고 웅얼거림만 생각한다면 웅얼거림

다다. 자기 몸이 병들고 웅얼거림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발랄하고 생동력 있고 불법의 진리는 그렇게 웅얼한 법이 아니라 라는 걸 알고,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지혜롭게 산다면 그건 스스로 풍부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서 남에게 팔 때 마다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기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뭐 천도를 시켜달라는 등, 환생을 시켜달라는 등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이 처리를 하는 것은 당신만이 해줄 수 있다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극하게 하십시오.

저는 신도님들께 그러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만일 이렇게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나타나고 거기서 모든 걸 그대로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렇게 믿고 관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맡겨 놓으면 천도되나?

문 항상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읽고 들으면서 스님처럼 마음을 쓰고 살려고,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시고 사시나?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행을 할 수 있나? 항상 화두 아닌 화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 있는 눈이 열리다 하겠는데 무조건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 맡겨 놓으면 다 천도가 되는 것이지요?

답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어려운 보살이 집에 정성스럽게 다녔는데 그때는 기를 썼기 때문에 기를 살 돈이 없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기를 조금씩 조금 얻어서 칠석에도 백중에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자기 주장자가 완박하게 서 가지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불이 당겨지는 것을 자기는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 '아! 일 해주고 얻는 것이 기를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있으며, 그대로 한생각에 훑히 당겨지는 구!'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간절하게 기를 얻어서 불을 켜고 그것은 한계가 있고 조금 바람만 불어도 꺼지니 이 노릇을 어찌나' 하고선 부처님의 공덕을 어떻게 해야 만이 다 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젖어서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지계군이 판을 지고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가십니까, 하니깐 "저 뒷마을에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질부사로 사람이 전부 쓰러지니까 집집마다 모두 비고 판군이 나와서 바깥에 내다 놓고 야단들을 하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뒷마을까지 퍼져 가니 네 동네네 셋 동네네 다섯도 안 남겠다고 걱정이 크다고 하면서, 나도 짊어지고 가지만 이거 정말 우리 부모가 아니라면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선 가만히 앉아서 그때

18면으로 계속

기복은 안위를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어시아주